2015년
9월 7일 월요일

NO.400

상생뉴스

한국철도시설공단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한!
Rail Network실현

/ 발행인 강영일 / 편집인 신철수 / 기사문의 042)607-3085 / http://www.kr.or.kr /

수도권 서남부 오이도~인천구간 철도 시대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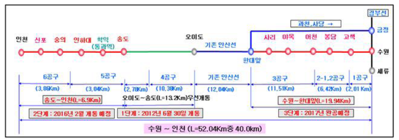
– 철도공단, 수인선 송도~인천구간 2016년 2월말 개통 계획 –

수도권본부(본부장 김영하)는 수인선 송도~인천구간(7.3km)의 시설물 공사를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하고 영업시운전 등을 거쳐 내년 2월말까지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인선은 일제 강점기에 경기도 수원시과 인천시 수인역(남인천역)을 연결하는 협궤철도로 개통되었지만 1995년 12월 31일부로 운행이 중지됐고, 2004년 12월부터 수인선 복선전철화 사업을 시작하여 2012년 6월 30일 오이도~송도구간(13.1km) 1단계가 개통됐다.

공단은 이번에 개통하는 송도~인천구간에 대하여 운영사인 코레일(KORAIL)과 개통점검반을 구성하여 지난 8월 24부터 26일까지 토목, 건축, 안전, 궤도, 전기, 신호, 통신, 운전 등의 합동점검을 마쳤으며, 2016년 2월까지 시설물 검증, 영업시운전 등을 시행하여 개통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공단 수도권본부 박준원 건설총괄처장은 "나머지 구간인 경기도 수원~한대앞 구간을 2017년까지 완료하여 수인선 전 구간을 개통하게 되면 수도권 서남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인선 구간별 개통계획 현황도〉



[태풍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 공사장 근처에는 위험하오니 가까이 가지 맙시다
○ 철도건설현장의 전차선로는 전기가 공급되면 특고압 전기가 흘러 매우 위험하오니 접근금지
○ 토공 굴착면의 붕괴, 토석 낙하 위험장소에 이동금지
○ 강풍 시 건물입간판 및 위험시설물 주변 보행 및 접근금지
○ 선행강우로 급경사지 등 붕괴위험지역 출입금지
○ 대형공사장 위험축대 등 시설물 주변 접근금지

철도공단, 부채감축을 위해 안간힘...

–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철도통신용 전선관로 임대.. 연158억 원 수익창출!–

기술본부(본부장 김상태)는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와 철도통신용 관로 임대사업을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에만 158억 원의 수익을 창출해 고속철도 건설부채를 감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철도공단은 2005년부터 기간통신사업자(한국전파기지국, LGU+, KT 등)를 대상으로 철도용 통신케이블 관로 임대사업을 추진해 작년까지 138억 원의 수익을 냈고,

올해 8월에도 SK텔레콤과 통신관로 임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20억 원의 수익이 추가로 발생될 예정으로, 올해에만 158억 원의 수익창출이 가능하다.

철도공단의 철도 통신용 전선관로 임대사업 추진으로, 공단은 매년 158억 원의 수익 창출로 고속철도 건설로 발생한 건설부채를 줄이고, 기간통신사업자는 5G이동통신 및 IOT(사물인터넷) 등 고품질의 통신서비스를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개발 및 제공이 가능해 국내 통신기술 발전은 물론 이용자의 편의성이 더 좋아질 수 있다.

또한, 국가적으로는 시설물의 공동사용으로 중복투자 및 난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철도공단 김선국 전자통신처장은 "향후에는 통신관로 임대 뿐 아니라, 철도통신망의 안전한 구축 및 유지관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해 기간통신사업자 통신회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철도통신망의 안정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철도공단은 지난 8월 19일(수) '오늘의「빚」을 내일의 「빛」으로' 라는 슬로건 아래 대전 본사 1층 직원 출입구에 KR 부채시계(debt watch)를 설치하였으며, 부채중점관리기관의 불명예를 씻고, 우수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부채감축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 부채시계 내용 : 현재 금융부채, 전년말 금융부채 및 일일 이자비용 등 재무현황과 부채감축 캐치 프레이즈 게시

철도공단, 'KR형 레일체결장치' 국산화 완료

– 시험부설 및 성능검증 완료, 원주~강릉 사업에 입찰공고 –

기술본부(본부장 김상태)는 그동안 외국산 제품에 의존해왔던 레일체결장치를 국산 개발하여, 현재 건설 중인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에 첫 적용하기 위해 지난 19일 입찰 공고하였다고 밝혔다.

* 레일체결장치 : 레일과 침목을 고정하여 열차하중으로 부터 궤간(레일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구성품의 조합체

철도공단은 레일체결장치 국산 개발을 위해 2013. 3월 철도기술연구원과 기술개발 협약 체결 후, 설계 · 해석, 시제품 제작, 실내 성능시험, 현장 시험부설, 현장 설치시험 등 개발 단계별 성능확인을 거쳐 금년 7월 "철도시설성능검증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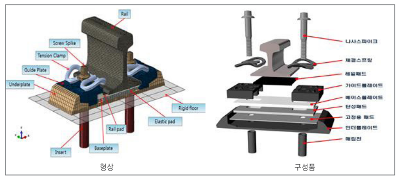
현장 설치시험은 유럽 EN 규격과 공단의 철도시설성능지침을 적용하여 호남고속철도 정읍~광주송정 구간에 국산개발 KR형 레일체결장치를 300m 부설한 후, '14.5월~ '15.6월까지 KTX열차를 시속 300km/h로 운행하면서 정적 · 동적 안전성을 확인하였으며, 곡선구간에서 발생하는 횡압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기 위해 침목에 횡압 방지턱을 설치하고, 선형 높이 조정능력을 향상시켰으며, KTX의 실제 운행하중의 약 2배에 달하는 가혹한 조건에서 안전성 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을 확인하였다.

철도공단은 그동안 외국산 체결장치가 특정외국업체(P사와 V사)의 과다한 독과점 경쟁으로 인해 논란이 야기되는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 홈페이지 및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관련기술자료, 입찰정보 등을 사전에 공개함은 물론 관심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공개 기술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금번에 개발한 KR형 레일체결장치 특허기술의 실시권을 개방하여 입찰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국내업체에게 공정한 입찰참여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동안 한국철도는 세계 5번째로 고속철도기술을 개발하였음에도 기초자재인 레일체결장치를 외국산 제품에 의존하는 기술종속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국산화 자재 개발로 국민혈세의 해외유출, 외국제품 공급 대리점 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였다.

철도공단 하복수 궤도처장은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한 KR형 레일체결장치를 실용화 및 구매를 통해 외화절감 및 중소기업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한국고속철도의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서 해외진출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국산개발 KR형 레일체결장치



호남고속철도 KR레일체결장치 시험부설 현장

철도시설공단, 태풍 '고니' 등 기상영향 대비 비상근무체제 유지

– 태풍 북상에 따라 취약시설 사전점검 및 재난대책상황실 운영 –

안전품질실(실장 정천덕)은 강풍과 많은 비를 동반한 제15호 태풍 '고니'가 북상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직 · 간접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난대책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철도공단은 집중호우에 취약한 선로변 절개지와 흙막이, 지하굴착 및 하천제방 공사현장 등 취약시설에 대한 긴급 점검활동을 시행하고, 이번 태풍에 직 ·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25일부터는 재난발생에 대비하고자 대전 본사에 재난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지역별로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철도운행선, 도로 및 산사태 · 급경사지 위험지역 등과 철도건설현장의 인접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위험징후 발견 시 즉각 응급조치하고, 인근 지역주민에게 국민행동요령을 사전 홍보하도록 각 지역 건설현장에 전달했다.

안전품질실 관계자는 "최근 전 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진 만큼, 국민들이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건설현장 및 선로변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철도공단, '사랑의 PC 보내기' 나눔 행사 참여

– 중고 PC와 노트북 등 전산장비 552대 기증 –

경영지원실(실장 이명환)은 한국장애인문화협회, 한국IT복지원, 국제장애인교류협회와 협력해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기증하기 위한 사랑의 PC 552대를 기증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단은 기증받은 분들이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중고PC를 깨끗이 수리하고, 재조립해 형편이 어려워 컴퓨터 구입이 어려운 대전시 관내 장애인 시설 및 철도선로변 취약계층에 무상으로 제공했다.

철도공단 오왕교 정보관리처장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랑의 PC보내기 나눔행사에 매년 참여하고 있다." 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발표회 행사관련 사진

(경심선 현장사무실에서 업무수행 현황 열람)

(경심선PM부장 우수 업무사례 발표)

(발표회 행사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함께)

철도공단의 중국철도 '감리 우수사례'를 선진국에 전파하다!

– 공단의 중국 고속철도 '최우수 외국감리사 선정사례' 발표회 가져 –

해외사업본부(본부장 오재욱)는 중국 북경~심양 고속철도사업(경심선)에서 2014년도 공단이 '최우수 외국감리사'로 선정되었고 지속적으로 뛰어난 업무수행 사례를 외국 감리사와 공유하기 위해 지난 8월20일 중국 요녕 현지에서 발주처(경심철도 요녕유한책임공사) 주관 하에 '우수 감리 사례 발표회'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철도공단은 중국 경심선 고속철도 감리를 수행하면서 ▲중국 감리사를 대상으로 실무 감리교육 훈련 실시, ▲건설현장의 다양한 결함에 대한 조치 방안 제시, ▲품질안전관리 관련 자료 제공, ▲공사 중 불합리한 시공 개선 제안 등으로 중국 발주처로부터 '최우수 감리사'로 인정받았으며,

또한 감리관련 서류 작성 시 중국의 규정에 정확하게 맞춰 관리함으로서 발주처로부터 업무수행능력을 인정받아 우수 사례 발표자로 선정되었다.

현재 중국 경심선 고속철도사업 감리에는 중국을 포함해 총 7개국이 참여 중으로, 이 날 사례 발표회에는 각국의 12개 감리사 책임자 38명이 참석했으며, 철도공단은 이날 발표회에서 공단의 감리수행 방식과 절차를 설명하고, 감리업무기준 및 실적, 현장 품질 · 안전 문제점 해결방안과 중국 철도현장 현황 등을 발표하는 순서로 발표회를 진행했다.

* 중국 외 참여국가 : 한국,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핀란드

철도공단은 중국 고속철도 사업의 감리사로써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공단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의 다양한 행사를 통해 철도건설전문 기관으로써 위상을 높이고 있으며, 중국의 고속철도 사업 진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철도공단 중국지사의 김용완 지사장은 "공단이 발주처가 시행한 외국 감리사 평가에서 다른 참여국가를 제치고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에는 공단 내 최고의 기술진을 보내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결과."이며, "이번 발표회를 성황리에 추진함으로써 한국 철도기술의 우수성을 중국에 더 많이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경심선(북경-심양) 사업 현황]

경심선 요녕구간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신설 경심철로여객전용선 요녕구간 역전공사
· 공사위치 : 북경시 성화역(星火站)에서 출발하여 요녕성 조양시 등을 경유하여 심양역까지 연결
· 노선연장 : 총연장 698km 중 요녕성 구간 406.7km
· 공구분할 : 시공감리 6개 공구

구분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비고
연장(km)	50.423	77.772	77.742	72.085	59.991	47.896	
참여국	독일	한국	핀란드	미국	프랑스	영국	

경심선 요녕구간 3공구 감리 개요
· 연 합 체 : 북경철연건설감리유한책임공사 & 한국철도시설공단
· 감리기간 : 56개월(철도공단 33개월)
· 감리비용 : 100억원(철도공단 35억원)

사업노선도

한국철도시설공단, 270억원 방글라데시 철도감리 사업 수주

– 2014년도 신호현대화사업 수주에 이은 두 번째 성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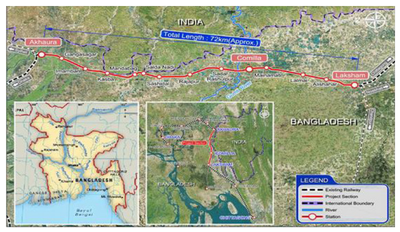
해외사업본부(본부장 오재욱)는 방글라데시 철도청(BR)이 발주한 270억원 규모의 철도시공감리 국제입찰에서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3일 밝혔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최근 낙후된 기존의 국가철도망 개량사업을 중점 추진 중이며, 철도공단은 방글라데시 동부 인도와의 접경지역인 악하우라(Akhaura)~락삼(Laksam)간(72km) 단선철도의 복선화와 개량사업에 대한 시공감리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이후 계약협상을 거쳐 최종 계약이 성사되면 곧바로 현지에서 과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철도공단은 이번 입찰에서의 성공요인으로 그간 철도사업관리와 감리분야 국내 유일의 전문 공기업으로서 쌓아온 대내외적 신뢰도와, 공동참여한 도화엔지니어링과 제안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분야별 최고전문가를 투입, 차별화된 기술 제안 등으로 기술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점을 꼽는다.

이종윤 해외사업처장은 "이번 사업은 공단이 지난해 초 수주하여 성공적으로 과업 수행 중인 방글라데시 동부 11개 역사 신호현대화사업에 이은 두 번째 성과이다. 방글라데시에서의 연이은 쾌거로 이후 유사 발주예정사업뿐만 아니라, 금년부터 공단이 전략 진출지역으로 지정하여 준비 중인 인도, 네팔 등의 여러 신규 철도사업 입찰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이 해외철도 시장에서 더욱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방글라데시 악하우라~락삼 사업 노선현황



철도공단 충청본부, 장애우들과 '한가족 되기 행사' 시행

– 한마음복지재단 한줄기 생활시설을 찾아 장애우들과 즐거운 시간 가져 –

충청본부(본부장 노병국) KR봉사단과 직원가족은 8월25일(화) 대전 서구 장안동에 위치한 한마음복지재단 한줄기 생활시설(원장 엄정미)을 찾아 한가족 되어주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충청본부 KR봉사단 15명과 직원가족은 모금한 성금을 시설에 전달하고 장애우들과 햄버거, 빵, 케이크 등 다양한 요리를 함께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충청본부는 한마음복지재단 한줄기 생활시설에서 올해 4월 초에 장애인의 날부터 인연을 맺고, 봉사활동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설환경정리, 장애우와 함께 산책하기, 요리 만들기 등 봉사활동을 할 계획이다.

충청본부 노병국 본부장은 " 다양한 활동을 같이 하면서 장애우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에 봉사단도 한가족처럼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면서 "앞으로도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도공단, 경부선 철도 횡단 '홍도1, 2 지하보도' 2개소 동시 개통!

– 경부고속철 대전도심 철도변 정비사업으로 추진.. 주민불편 해소 –

충청본부(본부장 노병국)는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 정비사업으로 추진한 경부선 철도를 위로 횡단하는 2개소의 보도육교(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동 일대)를 지하보도로 개량하는 공사가 완료되어 8월20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철도공단은 대전 동구 홍도동을 동 · 서로 연결하는 홍도1 · 2지하보도 건설을 위해 총 43억원이 투입하여 2012년 12월 공사를 착공했으며, 이번에 지하보도가 개통됨에 따라 지역 단절이 해소되고, 지역주민들의 이동편의 증진은 물론, 기존 열차운행선 위로 횡단하던 보도육교가 지하보도 변경되어, 열차안전운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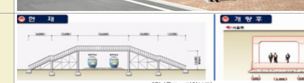
본부 관계자는 "대전도심 철도변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대전시 관내 철도노선을 횡단하는 지하차도 14개소와 고가차도 1개소 등 총15개소(신설 9개소, 개량6개소)에 대해 신설 · 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업이 완료되는 올해 말부터는 철도로 인한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 한남고가, 성남지하차도, 효동1지하차도, 원동지하차도는 기개통되어 사용 중

홍도 제1지하보도

구분	내용		
조감도			
현황도	 개량 (육교⇒지하보도)		
위치	서기(현) 151lkm 298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동)		
공사현황	공단 : 지하보도 L=26m 대전시 : 연결도로 L=150m	총사업비	3,237백만원 (공단: 1,441 / 대전시: 1,796)
		공사기간	2012. 12 ~ 2015. 08
공사추진 현황	공단 시행 : 개착박스(L=25m) 대전시 시행 : 캐노피 및 안전시설 설치		
개통시기	'15. 8. 20일 개통		
전경사진			

홍도 제2지하보도

구분	내용		
조감도			
현황도	 개량 (육교⇒지하보도)		
위치	서기(현) 151lkm 608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동)		
공사현황	공단 : 지하보도 L=25m 대전시 : 연결도로 L=157m	총사업비	1,088백만원 (공단: 511 / 대전시: 577)
		공사기간	2012. 12 ~ 2015. 08
공사추진 현황	공단 시행 : 개착박스(L=25m) 대전시 시행 : 캐노피 및 안전시설 설치		
개통시기	'15. 8. 20일 개통		
전경사진			

경부고속 도심구간 정비사업(지하차도 등) 추진 현황

구분	시설명	계획	개통예정
1	한남고가차도 (대전시 동구 오정동 172-4 일원)	고가차도 개량 (2차선⇒4차선) - 폭=20m - 총길이=620m (고가차도 170m, 연결도로 430m)	'11.03월 (완료)
2	성남지하차도 (대전시 동구 성남동 223-17 일원)	신설 - 폭=22m - 총길이=481m (지하차도 112m, 연결도로 369m) - 집수정1개소	'15.05월 (완료)
3	효동1지하차도 (대전시 동구 효동 255-4 일원)	개량 (4차선⇒4차선) - 폭=23m - 총길이=450m (지하차도 43m, 연결도로 407m) - 집수정1개소	'15.05월 (완료)
4	원동지하차도 (대전시 동구 원동 406-2 일원)	개량 (4차선⇒4차선) - 폭=23m - 총길이=455m (지하차도 79m, 연결도로 376m) - 집수정1개소	'15.07월 (완료)
5	홍도1지하보도 (대전시 동구 홍도동 150-6 일원)	신설 (육교⇒지하보도) - 폭=3m - 총길이=176m (지하보도 26m, 연결도로 150m) - 집수정1개소	'15.08월 (완료)
6	홍도2지하보도 (대전시 동구 홍도동 171-4 일원)	신설 (육교⇒지하보도) - 폭=3m - 총길이=182m (지하보도 25m, 연결도로 157m) - 집수정1개소	'15.08월 (완료)
7	삼성지하차도 (대전시 동구 삼성동 441-1 일원)	개량 (4차선⇒6차선) - 폭=31m - 총길이=400m (지하차도 44m, 연결도로 356m) - 집수정1개소	'15.09월
8	판암1지하차도 (대전시 동구 판암동 707-4 일원)	신설 (건널목⇒2차선) - 폭=16m - 총길이=33m	'15.09월
9	홍도1지하차도 (대전시 동구 홍도동 20-4 일원)	개량 (2차선⇒4차선) - 폭=23m - 총길이=858m (지하차도 37m, 연결도로 821m) - 집수정1개소	'15.10월
10	효동2지하차도 (대전시 동구 효동 236-7 일원)	신설 (4차선) - 폭=23m - 총길이=277m (지하차도 43m, 연결도로 234m) - 집수정1개소	'15.10월
11	신흥지하차도 (대전시 동구 신흥동 189-30 일원)	신설 (건널목⇒4차선) - 폭=24m - 총길이=387m (지하차도 51m, 연결도로 336m) - 집수정1개소	'15.11월
12	판암2지하차도 (대전시 동구 판암동 373-25 일원)	신설 (2차선) - 폭=17m - 총길이=164m (지하차도 51m, 연결도로 113m)	'15.11월
13	정동지하차도 (대전시 동구 정동 4-47 일원)	신설 (보도⇒4차선) - 폭=25m - 총길이=484m (지하차도 140m, 연결도로 344m) - 집수정1개소	'15.12월
14	인동지하차도 (대전시 동구 인동 347-1일원)	개량 (4차선⇒6차선) - 폭=33m - 총길이=392m (지하차도 43m, 연결도로 349m) - 집수정1개소	'15.12월
15	판암3지하차도 (대전시 동구 판암동 158-1 일원)	신설 (4차선) - 폭=24m - 총길이=30m	'16.03월

철도공단, 이천~충주간 철도건설사업 전 공구 본격 착공!

– 2019년 말까지 완공계획.. 충북선 등 타노선과 연계로 교통편의 대폭 향상 –

충청본부(본부장 노병국)는 2019년말 완공목표인 이천~충주 철도건설 사업의 전체 구간이 모두 착공되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철도공단은 그간 (가칭)112정거장 위치선정 관련 이천시 장호원읍과 음성군 감곡면간의 지역갈등이 최근 해결됨에 따라, 착공이 지연되었던 공사구간(2공구)을 2015년 8월초 계약하고 전체 공사구간을 본격 착공했다.

철도공단이 1조 1,11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건설하는 이천~충주 철도사업(L=54km)은 경기도와 충북 지역의 철도망을 확충하여 지역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충북선(조치원~봉양)과 중앙선(청량리역~경주역)을 연결하여 중부내륙축의 물류 수송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충청본부 노병국 본부장은 "112정거장이 포함된 2공구는 다소 늦게 착공되었지만 용지매수와 공사를 병행하여 공기를 만회할 예정."이라며, "추경예산 200억원을 포함해 금년예산 1,000억 원을 전액 집행하여 경기도 이천 · 여주, 충북도 음성 · 충주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전했다.

이천~충주 철도건설사업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이천~충주 54km(단선전철)
· 사업기간 : 2005년 ~ 2021년
· 총사업비 : 1조 1,116억원

□ 공사현황

공구	연장(L)	시공사	계약금액(백만원)	행정구역	착공일
1공구	10.0km	계룡건설산업(주)	72,976	경기도 이천시 · 여주시	2014.12
2공구	11.1km	극동건설(주)	79,194	경기도 이천시 충북도 음성군	2015.08
3공구	11.2km	㈜한양	89,891	충북도 음성군 · 충주시	2014.12
4공구	9.1km	㈜케이씨씨건설	55,448	충북도 충주시	2014.12
5공구	12.6km	고려개발(주)	157,956	충북도 충주시	2015.06

'방음벽 설치'로 선로변 인근 주민 생활환경 개선

– 철도공단, 경부선 칠곡군, 영동군 선로변에 방음벽 설치 완료 –

충청본부(본부장 노병국)는 선로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4년 9월 착공한 충북 칠곡군, 영동군 관내의 방음벽공사 설치 및 보완공사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구간은 1일 열차운행횟수 128회나 되는 구간으로, 주민들의 열차운행 소음피해 예방을 위하여, 5개소 1천 284m에 방음벽 설치 및 보강작업을 시행했으며, 총 2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다.

특히, 이번 방음벽 시공과정에서는 주민참여제도(PI : Public Involvement)를 도입하여, 시공 전 주민설명회를 시행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한 예로 칠곡군의 왜관수도원 주변은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방음벽높이를 조정해 큰 효과가 있었다.

충청본부 노병국 본부장은 "방음벽 공사가 완공됨에 따라 칠곡군, 영동군의 선로변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크게 좋아 질 것으로 기대되고, 도시미관을 고려한 방음벽으로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별첨] 방음벽 설치 현황

선별	역 구 간	소재지	연장	비고(주변여건)
	계		1,284.5m	
경부선	영동역구내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427번지	262.0m	이수초등학교 인근
경부선	왜관역구내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216-124	104.00m	왜관역인근 남측(좌측)
경부선	왜관역구내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321-3	376.00m	왜관수도원 인근
경부선	왜관역구내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227-1	390.50m	왜관역인근 남측(우측)
경부선	신동~지천	경북 칠곡군 지천면 덕산리 430	152.00m	이언길 인근

철도공단 충청본부, 한가족 되어주기 행사 참여

– 한마음복지재단 한줄기 생활시설 장애우들과 요리만들기–

충청본부(본부장 노병국) KR봉사단과 직원가족은 8월25일(화) 서구 장안동에 위치한 한마음복지재단 한줄기 생활시설(원장 엄정미)을 찾아 한가족 되어주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 날 KR봉사단 15명과 직원가족은 성금을 전달하고 햄버거, 빵, 케익 등 다양한 요리를 함께 만드는 등 거동이 불편하고 홀로 떨어져 생활하는 장애우들과 따뜻한 가족애를 나누는 행사를 가졌다.

한마음복지재단 한줄기 생활시설과 올해 4월 초에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인연을 맺어 산길 함께 걷기 등 봉사활동을 펼쳤으며, 앞으로도 시설환경정리, 함께 산책하기, 요리 만들기 등 봉사활동을 할 계획이다.

충청본부 노병국 본부장은 " 다양한 음식 만들기를 하면서 장애우들이 서툴지만 즐거워하는 모습에 한가족처럼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면서 "앞으로도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청본부 유영달 기자〉

구)동익산역 철도부지에 행복주택사업 본격 추진

– 철도공단, LH공사에 철도부지 사용신청 승인 –

호남본부(본부장 이현정)는 전라선 개통으로 사용하지 않는 구)동익산역 철도부지(2만761.4㎡)를 행복주택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요청한 부지사용허가 신청서를 27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 행복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에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와 취약계층 및 노인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시세 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LH공사가 건설하고 있으며, 철도공단은 행복주택 건설을 위해 철도부지를 제공

익산인화지구 행복주택사업은 지난 2015년 1월에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 지구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이미 마쳤으며,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8월 1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오는 9월 중으로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2만761.4㎡ 부지에 총4개동으로 612가구가 건설될 예정이다.

이현정 본부장은 "철도부지를 이용한 행복주택사업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길 바란다."며 "공단은 2011년에 전라선 익산~신리 철도 개통으로 발생된 폐선부지도 익산시와 협의하여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 및 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국민들을 위해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호남본부, 건설현장 안전 · 품질 특별교육 실시

호남본부(본부장 이현정)는 8월 19일 본부 2층 교양실에서 '건설현장 안전 · 품질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특별교육에는 공단 공사관리관 및 협력사 안전 · 품질담당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구조물 품질관리', '레미콘 품질관리 및 공장점검 요령', '호남고속철도 사례를 통한 품질 향상 방안'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최근 발생된 운행선 구간에서의 안전사고 사례 교육을 통해 현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하였고, 특히 추석을 맞이하여 공단과 협력사의 청렴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교육도 함께 실시하였다.

또한, 이날 품질관리 우수현장(4개 현장) 직원에 대한 포상도 함께 시행하여 사기진작을 통해 공사현장의 품질향상 의지를 높였다.

〈호남본부 최광주 기자〉

수도권본부 현장 안전활동 강화 및 예산집행 결의대회 시행

(안전 · 재난관리 교육)

(예산집행결의대회)

수도권본부(본부장 김영하)는 철도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15.8.6부터 8.26까지 안전의식 고취 및 동종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사고사례 중심의 특별교육과 안전점검을 시행했다.

이번 안전활동은 철도사고에 특히 취약한 신규착공현장, 운행선 인접공사 그리고 소규모공사현장을 위주로 44개 공구를 직접 방문하여 안전 · 재난관리 교육 시행과 안점점건 시행으로 선제적 예방활동을 통한 무재해 안전시공과 안전 · 재난업무 역량향상에 기여하고자 했다.

또한, '15년 8월 20일, 26일 이틀에 걸쳐 성남~여주 복선전철 사업 및 당고개~진접 복선전철사업을 대상으로 안전 · 재난교육 후 부발차량기지 및 진접선 4공구에서 예산집행 결의대회를 가졌다.

수도권본부는 철도공단 '15년 건설사업 예산의 36%를 집행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15년 본예산 2조4,407억중 1조 5,447억원(64.3%)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3/4분기중 추가경정예산 600억원 전액집행을 달성하고자 세부대책을 수립하고 그 세부실천계획 중 하나인 이번 예산집행 결의대회를 가졌다.

〈수도권본부 서문원 기자〉

철도공단 강원본부, 반부패 청렴실천 캠페인 전개

강원본부(본부장 최정환)는 9월3일(목) 원주역 광장에서 반부패 청렴실천 캠페인을 전개하며 시민들에게 청렴결의 및 실천의지를 전달했다. 이날 청렴캠페인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청렴한 세상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라는 현수막과 어깨띠를 착용하고 원주역 광장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원주~강릉, 원주~제천" 등 지역에서 추진중인 철도사업을 안전하고 청렴하게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청렴홍보물을 배부했다.

강원본부는 3일 오전, 본격적인 청렴캠페인을 전개하기에 앞서 청렴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 · 청렴 전문강사를 초빙해 "청렴이 경쟁력이다"라는 주제로 전 직원 청렴 특강을 시행했다.

최정환 본부장은 "앞으로도 반부패 ·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강원본부 조득호 기자〉

주요기사(2015. 8. 21~9. 3)

2015. 08. 19. (수)
◈ 구미~칠곡~경산61㎞ '대구광역권 전철' 구축(중앙일보R02)
◈ 신안산선 착공 확정.. 광명시민 환영(경기일보10)
◈ '동서고속철 예타' 부처 움직임 예의주시(강원일보2)
◈ 출구 안보이는 수도권경전철(매일경제26)
◈ "오색케이블카 끝까지 챙기겠다"(강원일보3)
◈ 대전행 밤 11시30분 KTX 일시 중단(국민일보12A)
◈ 교통안전공단, 경원선 철도복원 안전진단 시행(충청투데이7)
◈ 세계시장 못달리는 현대로템 고속전철(경남신문1)
◈ 임금피크제 '공공기관 버티기'에 초강수... 노조 반발이 변수(서울신문2)
◈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안 하면 내년 연봉인상률 절반 깎는다(서울신문1)
◈ 공기업 기관장 연봉 30% 이상 삭감(파이낸셜뉴스25)
◈ 박 대통령, 공무원 · 공기업 기강단속 강화(내일신문3)
◈ "13조 말-싱 고속철 참여하겠다"...민간 LOI 쇄도(연합인포맥스)
◈ KTX없는 광주역, 어떻게 살리나(연합뉴스TV)

2015. 08. 20. (목)
◈ "오늘의 빚을 내일의 빛으로" 철도공단 부채 줄이기 총력전 (한국일보26A,파이낸셜25,충청투데이7,대전일보3)
◈ 도, 춘천~속초철 예타조사 총력 대응(강원도민일보2)
◈ "충청권 광역철도망 반드시 관철"(충청투데이4)
◈ "KTX 신설 사업 거제 포함된다"(부산일보10,경남신문04)
◈ KTX 끊긴 채 존치 결정 사후활용 갈피 못 잡아(무등일보1)
◈ 황당한 코레일··· 막차 중단 하루뒤 알려(국민일보13)
◈ "韓-中 열차페리 내년부터 적극 추진"(동아일보B01,동아일보B07
◈ 공공기관 임원 연봉 합이 770억··· 나이 든 직원 임금만 깎을 일인가(한국일보27)
◈ [태평로] 임금피크제만으론 어림없다(조선일보35)
◈ "재정건전성 곧 위험···증세 필요"(경향신문20)
◈ 정부 출연연, 공공기관 제외될까(대전일보2)
◈ [머니만 정상화 보도' 관련 철도시설공단측 반론](건설경제)
◈ 철도시설공단 부채 시계 'ON'(연합뉴스,news1,한국경제,아주경제,파이낸셜뉴스 외)
◈ 대전 홍도1 · 2 지하보도 건설 완료...20일 개통 (news1,헤럴드경제,아시아투데이,아시아뉴스통신)
◈ 대형 철도사고 막는다···관제센터 국가가 관리키로(news1)
◈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고속철 건설사업 참여의향서 마감(건설경제)
◈ 〈역사속 오늘〉 근대사 영욕 함께한 경부선 첫 삽 뜨다(연합뉴스)

2015. 08. 21. (금)
◈ 폐철로 공원서 여름밤 치맥파티 ··· 연남동 숲길이 뜬다(중앙 21)
◈ '신수원선' 노선 '민-민 갈등' 첨예화(인천 19)
◈ '고속철 수출 애로' 현대로템 주행시험선 확장 가능해졌다(경남 01)
◈ 현실적인 접근 필요한 광주역 해법(무등 19)
◈ 경원선 권역을 통일경제 거점으로(경기 23)
◈ 대선공약, 이대로는 안된다(중도 19)
◈ 철도공단, 경부선 철도 횡단 '홍도1, 2 지하보도' 2개소 동시 개통(스페셜경제)
◈ 국내 최장 금정터널 사고 대응 훈련(연합뉴스)
◈ 광주송정역 '너무 비좁다' 볼멘소리(전남도민일보)

2015. 08. 24. (월)
◈ 광명사거리역 → 광명전통시장역 변경 추진(경기일보11)
◈ "대구도시철 내부순환선 만들고 동대구로 환승 급행버스 도입을"(매일신문6)
◈ 국내 제 1호 트램도시 위해...국내도시들 행정력 집중(경상일보11)
◈ '북삼역' 광역철도망 제외 칠곡주민, 신설 강력요구(대구일보8)
◈ 정부 · 민간 공간정보 연내 통합포털 구축(국제신문12)
◈ 지방공기업 부채 8조4000억 줄인다(국민일보14)
◈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몸살...직원 불러 "찬성하라"(한겨레16)
◈ 열차 무장테러범 맨몸으로 덮쳤다, 미국인 영웅 3명(중앙일보14)
◈ [사설]30년 숙원 동서고속철 예타가 발목 잡아선 안 돼(강원일보7)
◈ 장항선복선전철 · 대산-당진고속도로 등 충남 예타통과 전력투구(충청투데이)
◈ 용인시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용인흥덕지구 경유해야"(아시아투데이)
◈ 지하철역사서 낙싯대 꺼내 든 60대 검전(NEWSIS)
◈ [자막영상] 영하40도에도 씽씽...중국판 '설국열차' 개통했다(연합뉴스)

2015. 08. 25. (화)
◈ 국내서 개발 '레일체결장치' 첫 적용(중도일보4)
◈ 노후화 철판→콘크리트 '탈바꿈' 소음은 줄이고... 안전은 높이고(경기일보8)
◈ 이천 ~ 충주 철도 미착공 구간 장호원읍 · 감곡면도 정상 추진(경인일보20)
◈ 구미~대구~경산9개역 2021년 광역철도 달린다(대구일보1)
◈ 추석 열차승차권 내달 1,2일 예매(동아일보16)
◈ 2020년 울릉도에 경비행기 뜬다(매일신문8)
◈ 공기업24곳 임금피크제 도입 한수원 등 19곳 이번주 결정(조선일보10)
◈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한달새 두배 이상 늘었다(서울경제8)
◈ [사설] KTX 훈련소역도 필요하다(중도일보19)
◈ 철도공단 국산 'KR형 레일체결장치' 첫 도입(연합뉴스,아시아경제 외)
◈ 철도공단, 태풍 '고니' 등 기상영향 대비 비상근무체제(아시아투데이,국토매일신문 외)
◈ 철도공단 이천~충주 간 철도건설 전 공구 착공(연합뉴스,news1 외)
◈ 강원경제인연합회, 동서고속철도 조기 착공 촉구(연합뉴스)
◈ 군산 폐선부지, 시민 공간활용 필요(전북도민일보)

2015. 08. 26. (수)
◈ 강릉 랜드마크 될 '남대천 교량' (강원일보22)
◈ 전철7호선 양주 연장사업 탄력 (경기일보4, 인천일보02, 경인일보4)
◈ 영동대로 지하에 6개 철도 통합환승장 (동아일보16, 국민일보14, 한국일보26, 한국경제26, 매일경제26, 파이낸셜8, 서울경제31, 세계일보12)
◈ "동해선 복원 금강산 관광 재개부터" (강원도민일보3, 강원도민일보9)
◈ 광주시 · 전남도, 국비확보 '총성없는 전쟁' (무등일보1)
◈ 대전 도시철2호선 '트램' 전국확산 (중도일보1)
◈ 남북대치 접경지 주민 피해 "동서고속철로 보상하라" (강원일보20)
◈ 임금피크제+청년채용 '수순 1쌍당 1080만원 지원 (세계일보14, 서울경제29)
◈ 철도공단, '철도공사 등이 국토부 산하기관 부채 대부분 차지' 보도 입장 밝혀 (스페셜경제)
◈ 원주~강릉 철도 남대천교... '일출 형상화' (연합뉴스)
◈ 中 '창춘 고속철' 운행계획 확정... 베이징-훈춘 9시간대 (연합뉴스)

2015. 08. 27. (목)
◈ 경원선 '統一 철길' 위에 당신의 이름을 새기세요(조선일보1)
◈ 기부자 새긴 침목 1만5000개 ... 일일이 콘크리트로 제작(조선일보2)
◈ "南北이어 유라시아로" ... 손기정, 이준의 꿈을 현실로(조선일보2)
◈ [목요세평]철도를 보면 도시발전이 보인다(충청투데이20)
◈ 새누리 "경전선 부전~사상 지하화 총선 공약으로"(부산일보6)
◈ 정치권, 서대전~광주 KTX 연결추진(중도일보1)
◈ 김천에서 거제까지...대한민국 국토의 중심을 잇는다(대구일보24)
◈ 인천 청라에 27일부터 GRT 시범운행(파이낸셜뉴스26,인천일보3)
◈ 임금피크제 속속 도입··· 강성勞組 대기업은 난항(조선일보B06)
◈ [동아광장]노동시장 개혁, 깎아내리거나 부풀리거나(동아일보30)
◈ 철도공단, 소외이웃에 전하는 '사랑의 PC'(충청일보,헤럴드경제,스페셜경제,국토경제)
◈ 철도公 충청본부, 장애우들과 '한가족 되기 행사' (충남일보,건설경제,국토매일신문 외)
◈ 부산 도심 철도시설 재배치 논의 본격화 기대(연합뉴스,NEWSIS,국제신문)
◈ 탈선 사고 막아 수백명 구한 '소년' 49년 만에 재조명(연합뉴스)
◈ 태국에 '철도 한류' 마케팅...한국 철도기술 전수 추진(연합뉴스)

2015. 08. 28. (금)
◈ 경원선 침목 나눔' 첫날 1500명 몰려(조선일보2)
◈ [만물상] 경원선(조선일보34)
◈ "춘천~속초 고속鐵 '국가 정책' 관련사업"(강원일보3,강원도민일보2)
◈ 대전 역세권 개발로 원도심 활성화 견인한다(충청투데이2,대전일보2)
◈ 대구도시철도 1호선 연장구간 광역철도 사업 지정됐다(동아일보18C)
◈ 노사정 협상 테이블 4개월만에 재개... 임금피크제 논의 협의체 만들기로(한국일보6)
◈ 임금피크제 도입 안하면 지방공기업도 연봉 삭감(매일경제26)
◈ 지방이전 공공기관 채용 '지역 출신자 우대' 논란(파이낸셜뉴스23)
◈ 국정감사, 내달 10일부터(파이낸셜뉴스12)
◈ 철도공단 중국서 우수 감리사례 전파(연합뉴스,국토해양신문,국토매일신문,건설경제)
◈ 철도공단, 구)동익산역 철도부지에 행복주택사업 본격 추진(아시아경제)
◈ 철도종합시험선로 편입 지주들 '보상가' 재감정 요구(news1)
◈ [단독] 철도공단, 호남고속철 담합 28개 건설사에 수천억대 소송(뉴스핌)

2015. 08. 31. (월)
◈ "경원선 철길에 내 염원 담아···" '침목나눔 기부' 2264명 동참(조선일보2)
◈ [이코노미 줌in] 철도시설공단 부채감축 '총력'(중도일보4)
◈ "춘천~속초 고속철 올인"(강원도민일보1)
◈ KTX 서대구역사 건립사업 '파란불' (대구일보1)
◈ 오산 복선전철-KTX연계 '청신호' (경인일보21)
◈ KTX 오송역 개명 용역 발주 12월께 결론 날 듯(국민일보13A)
◈ KTX 오송역 일대 도시개발 본격화(경향신문20)
◈ 철도박물관 후보, 대전 등 3곳 압축(중도일보2)
◈ 강남역 경비직원 사망 사고, 역시나 안전 불감증(경향신문10)
◈ "청년 일자리 만들겠습니다" 공기업, 임금피크제 잰걸음(중앙일보C01)
◈ 공공기관 5곳 중 1곳 '임금피크제' (동아일보10)
◈ 이란 '일본 고속철 신칸센 도입에 관심'(연합뉴스)

2015. 09. 01. (화)
◈ 경원선 출발 용산역에서··· '침목 나눔 행사' 협약식(조선일보2)
◈ 지역 중소건설사 100억대 철도공사 참여 길 활짝(강원일보8)
◈ "우리가 산업현장 최고 해결사" 294개팀 뜨거운 경쟁(동아일보B07)
◈ 오늘 춘천~속초 고속철 2차 대규모 집회(강원도민일보1)
◈ 여주~성남간 복선철 역명 '여주역 · 세종대왕역' 유력(중부일보5)
◈ 레일바이크 · 자전거도로 등 시민 쉼터로 잇단 변신 일부 옛 역사 흉물로 방치 · 음식점 임대 등 안타까움(국제신문5)
◈ 8兆달러 아시아 인프라시장, 한국이 안보인다(조선일보B02)
◈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지역발전에 도움되고 있나(한겨레24)
◈ 기업 71% "임금피크제가 핵심"(동아일보1, 서울경제4, 파이낸셜뉴스8)
◈ 민자 SOC 적자보전 10년간 '혈세 수조원'(인천일보4)
◈ [사설]춘천~속초 동서고속철, 연내 기본계획 꼭 나와야(강원일보7)
◈ 철도 교통사고 사상자 매월 평균 13명 육박(NEWSIS)
◈ 승강장 안전발판 · 스크린도어 설치 등 철도역사 안전대책 마련(news1)
◈ "음주운전에 폭행까지"...코레일, 최근 5년간 비위 · 비리 72건 발생(news1)

2015. 09. 02. (수)
◈ 정치권, '총선 민심 추' 동서고속철 관철 사활 (강원도민일보3, 매일경제26 등)
◈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건설, 주민이 나섰다 (중앙일보R01, 동아일보18A, 한겨레12B)
◈ 광명시,코스트코 주차장 확장 250면 증축 요구··· 총 977면 조성 (중부일보7)
◈ 광양시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 (광남일보12)
◈ 지지부진 '평리재정비' 파란불 켜졌다 (대구일보6)
◈ 구리선 광역철도 '양보없는 與野 공치사' (경인일보5)
◈ 신림 경전철에 국산 철도 신호체계 첫 도입 (세계일보14, 국민일보12, 헤럴드경제12 등) "지역현안 사업 국고 확보 국회가 나서 달라" (광주일보3)
◈ 中과 틀어진 北, 러시아로 '턴' 철도운송량 1년새 9.5 배 급증 (헤럴드경제5,내일신문8)
◈ 中 라오닝성 선양~단둥 연결 고속철 개통 (세계일보17)
◈ 코레일 역주행,철도안전 '위협 (내일신문14)
◈ 통계로 본 기차 여행 KTX 승객 10년 새 두 배··· 이용객 1위는 무궁화호 (중앙일보G04)
◈ '임금피크제' 별도 협의체서 논의 (서울경제29, 한겨레10)
◈ 0.5% 공공부문 '기득권' 때문에 노사정委 '난항' (문화일보8, 충청투데이2)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률 12% 그쳐 (한국일보14,영남일보3)
◈ [서명수의 은퇴 팁]임금피크제 시행되면 DB형 퇴직연금 불리 (중앙일보B07)
◈ [사설] 다시 살바싸움 노사정위,타율적 개혁 불러올 텐가 (헤럴드경제27)
◈ 낙후한 철로 주변, '쓸모 있는' 공간으로 변신(연합뉴스)
◈ 능곡역~의정부역 연결 교외선 재개통 추진(경기일보)
◈ [포항]폐철도 공원화(안동MBC)

2015. 09. 03. (목)
◈ GTX 3개 노선 통과 · 초대형 비즈센터 건립··· 지도가 바뀐다(문화일보17)
◈ KTX 수서역 '찡그린벨트'에 운다(아시아경제19)
◈ 광양시, 동서통합 남도 순례길 조성(국민일보12B,전남일보10,무등일보10)
◈ 김영우 국회의원 '의정부 ~ 포천 전철 연장사업 성사를'(인천일보02(경기판))
◈ 올림픽교차로~기계공고 그린레일웨이 이달 착공(국제신문8)
◈ 대전 트램건설 속도낸다(충청투데이1,대전일보2,중도일보1)
◈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관철 '배수의 진'(강원일보3)
◈ 부활한 '경의선 숲길' ··· 텅빈 '신촌역사'(매일경제25)
◈ 한국 '유라시아 구상' · 중국 '一帶一路' 연계해 東北亞 개발(조선일보4)
◈ 印尼고속철 누구 품에 ··· 中 · 日 한쪽은 큰 상처(매일경제10)
◈ 30대그룹 계열사 56% 212곳 임금피크제 도입(서울경제33)
◈ 정부 '임금피크제' 압박, 협상 독될라(세계일보11)
◈ [매경춘추]고조선 횡단철도(매일경제33)
◈ [이재훈 칼럼] 임금피크제만 하고 말건가(파이낸셜뉴스31)
◈ 철도공단, 경부선 칠곡 · 영동군 선로변 방음벽 설치(연합뉴스,대구신문,충청일보 외)
◈ [뉴스9] 대전 3대 철도 현안...연말 최대 고비(대전KBS)
◈ 대전시 트램 도입 '법 개정' 절차...국토부 TF 구성 · 지원(연합뉴스,NEWSIS)

경조사

영남본부 근무 후 퇴직한 박범욱 부장 빙부상
□ 발 인 : 2015년 8월 26일

기술본부 전철처 기술계획부 안호성 인턴사원 조모상
□ 발 인 : 2015년 9월 2일